비어 있음 아는 자, 신문명에 겁먹지 않아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⑨ 실체는 없다, 다만 작동할 뿐



인간의 언어든 양자역학이든 비트코인이든 본질은 하나로 통한다. 모두 고정된 실체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말의 그물망' 일 뿐이다. 첨단 기술의 격변 속에서도 불교가 평상심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 그물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신기술을 가장 먼저 환대하는 불교

지난 글에서 우리는 조계사 마당에 등장한 AI 로봇 스님과 신기술을 대하는 불교계의 다정한 풍경들을 살펴보았다. 기계에 법명을 주고, 로봇을 도반과 제자로 맞이하는 이 개방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나는 그 답을 불교 특유의 언어관인 '가명론(假名論)'에서 찾아봤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쓰는 말이든 기계가 뱉는 소리든, 그 속에 고정불변한 알맹이나 신성한 실체가 없다고 본다. 말과 문자란 본래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기 위해 임시로 붙인 가짜 이름이자,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일 뿐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인간의 언어 자체가 조건에 따라 직조된 유용한 방편인데, 기계가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새삼스레 경계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크게 없다. 언어가 만든 그물에 갇히지 않는 지혜가 있기에, AI마저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질문을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한다. 과연 불교는 AI에만 이토록 유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첨단 문명이 등장할 때마다, 불교는 이를 배척하기보다 늘 "허허" 웃으며 가장 먼저 손을 잡고 활용하는 개방성을 보여왔다.

최근 불교계가 현대 과학의 최고봉이라는 '양자역학'을 '말'하고, 심지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마저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흥미롭다. 말 속에 고정된 알맹이는 없다고 보는 불교의 시선이, 최첨단의 현대 문명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지 그 풍경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려 한다.

원래 경계란 없다, 말로 쪼갰을 뿐

현대 물리학의 자랑인 양자역학은 불교가 세상을 보는 눈과 다르지 않다. 물리학자들은 미시 세계의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알갱이들은 측정되기 전까지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안개처럼 겹쳐진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불려 나온다.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묘한 겹침 속에 머문다. 그러다 관측자가 기계를 들이대고 측정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결정된 상태로 드러난다.

이 신기한 물리학 현상은 언어의 속성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원래 자연에는 칼로 자른 듯한 고정된 경계가 없다. 우리의 얼굴을 보면 이마와 볼, 턱은 경계 없이 하나의 살덩이로 이어져 있다. 무지개 역시 실제로는 연속적인 빛의 띠일 뿐, 일곱 가지 색으로 나뉘어 있지도 않다. 그런데 인간이 '이마'니 '볼'이니, 또는 '빨강'이니 '주황'이니 말로 가위질을 하는 순간, 원래는 하나였던 텅 빈 세계가 쪼개지며 고유한 경계가 생겨난다. 말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구획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이런 실상을 일찍부터 꿰뚫어 본 불교의 언어관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세상에 임시로 붙인 이름, 곧 가명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말한다. 양자역학에서의 '관측'이 언어와 불교에서 말하는 '이름 붙이기'와 통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흐릿하게 열려 있던 세계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의 대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공즉시색. 그래서 〈반야심경〉은 불교의 경전이지만, 읽다 보면 마치 "말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는가"를 설명하는 언어학 개론의 서문처럼 느껴진다.

불교 세계관의 디지털 코드화

최근의 불교학 논의들을 살펴보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불교적 세계관으로 막힘없이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I 수용 유연, 불교 언어관 '가명론' 때문
"고정 실체 없다" 불교와 양자역학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실체 없지만 작동
금융 언어서도 '공즉시색' 풍경 구현돼
언어가 만든 그물에 갇히지 않는 지혜

블록체인에는 중심이 되는 거대한 중앙 서버도, 거래를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정부나 은행도 없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컴퓨터가 장부를 나누어 갖고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며 연결돼 있을 뿐이다. 일부 불교학자들은 이를 보며 "인드라망처럼 세상에 절대적인 중심은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상호 연결돼 존재한다"는 불교의 무아와 연기법이 디지털 코드 위에서 구현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가상화폐도 그렇다.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비트코인은 금괴나 종이돈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이 없다. 오직 가상의 컴퓨터 장부 위에 적힌 기록과 사용자들의 '약속'으로만 존재한다. 알맹이는 완벽하게 비어 있는데, 가치는 거대하게 움직이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 경제학자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실물이나 국가의 보증처럼 비교적 안정된 근거가 있어야 화폐의 가치가 성립한다고 보았기에, 비트코인을 두고 실체 없는 투기 자산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비트코인은 월가의 제도금융권 안으로 들어왔다. 무의미한 코드의 조합에 불과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현실에서 거대한 가격을 만들고 제도의 방향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지만 작동한다는 이 아이러니는, 고정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세계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언어관으로 보면 어렵지도, 이상하지도 않다.

연필 속에 연필은 없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작동하는 원리는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단어)'의 속성과도 닮은 면이 많다. 미국의 유명한 동화 〈프린들 주세요〉를 보면, 한 아이가 '연필'을 '프린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로 부르기 시작한다. 온 동네 아이들이 재미와 장난으로 이 말을 한두 번 쓰게 되고, 문구점에 가서도 "프린들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점점 사회적인 '약속'으로 굳어진다. 결국에는 연필을 뜻하는 정식 단어로 사전에까지 등재된다는 스토리다.

우리가 쓰는 '사과'나 '나무' 같은 단어들도 그렇다. 그 소리 자체에는 실제 과일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다. 오직 우리끼리 "이 소리를 사과라고 하자"고 약속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길 뿐이다. 가상화폐도 똑같다. 국가가 담보하지 않아도, 참여자들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인정하겠다는 '약속'이 있기에 돈으로 작동한다. 물론 그 약속이 약해지고 신뢰의 그물망이 느슨해지는 순간, 비트코인 역시 언제든 텅 빈 코드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결국 불교의 언어관에서 세상 모든 단어는 이렇게 부르자는 이 시대의 '일시적 약속'일 뿐이고, 비트코인 역시 화폐로 인정하자는 이 시대의 '일시적 약속'이다. 둘 다 고정된 알맹이 없이, 오직 구성원들의 '신뢰와 합의'라는 보이지 않는 연결망 위에서만 살아 움직인다.

비트코인이 좋은 투자처인지 아닌지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이 가상화폐는 텅 빈 코드가 어떻게 현실에서 움직이는지, 실체 없는 이름이 어떻게 세계를 작동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기에 불교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현상임은 분명하다. 불교가 오래전부터 말해온 '공즉시색'의 풍경이 이제 금융의 언어 속에서도 구현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결국 인간의 언어든, 과학의 양자역학이든, 금융의 비트코인이든 본질은 하나로 통한다. 세상을 쪼개어 이름 붙이고 대상을 규정하는 행위는 인간이 만들어낸 정교한 '말의 그물망'일 뿐, 그 그물 너머에는 '고정된 무엇'이 없다는 사실이다.

인류의 신기술과 첨단 문명 앞에서 불교가 불안해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교적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언어의 그물에 갇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 문명이 첨단으로 나아갈수록, 도리어 오래된 불교의 가르침들이 가장 세련된 해석의 틀로 다시 호출되는 장면은 늘 짜릿한 경외감을 준다. 본질이 비어 있음을 아는 자는 신문명이 던지는 질문에 겁먹지 않을 수 있다. 그저 인연 따라 새로이 출현한 텅 빈 뗏목들에 올라타 기술과 문명의 강을 묵묵히 건널 뿐이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